

자연과 문명의 절묘한 조화- CANADA

캐나다의 화장실은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빚어내며 그것과 어우러져 있었다. 또한 남지화장실에 비해서 갖가지의 조형물과 그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트공예행사실장
홍 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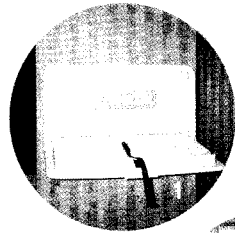
「캐나다」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단풍잎이 그려진 국기, 둘째 나이아가라 폭포, 셋째 갯거리의 동계올림픽 어린 시절의 내가 기억하고있는 캐나다는 이 세 가지가 전부였다. 여행업에 종사하게된 지금은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관광을 하다보면 시간관계상 관광지를 모두 들르지는 못하더라도 화장실만은 꼭 간다는 사실이다. 사실 나라마다 화장실에 대한 문화도 각양각색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예전과 달리 화장실문화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 화장실이 아름답고 쾌적하여 사용하는데 즐겁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정은 별악했던 기억이 난다.

세계 두 번째로 큰 나라

자 이제부터 서부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편한 이야기를 할까한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동서로 5,500km, 남북으로 4,600km에 달하며 자연과 도심의 문명이 너무나도 잘 조화된 나라이다. 내가 도착한 곳은 날짜변경선을 지나 15시간의 시차가 있는 지역으로 캐나다의 서부에 해당하는 밴쿠버라는 곳이다. 밴쿠버에 가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빅토리아 섬이다. 빅토리아 섬은 42억 송이의 꽃이 핀다고 하여 '도시의 정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유명하다. 빅토리아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람선을 1시간 정도 타고 가는데 물론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참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번쯤



1. 캐나다 플레이스(남성화장실 내의 기저귀교환대 설치)
2. 캐나다 플레이스(극장+박물관)
3. 유람선 내 화장실
4. 토론토 국제공항 내 남자화장실
5. 밴프의 고속도로 휴게소화장실(수질이 좋아 식수로 사용되어 물컵이 비치되어 있다.)
6. 밴프 고속도로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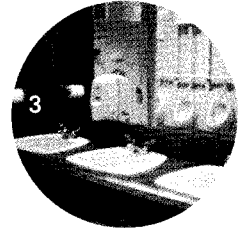


사용을 권하고 싶다. 그린색의 벽면 바탕과 나무의 조화는 더없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화장실에도 남녀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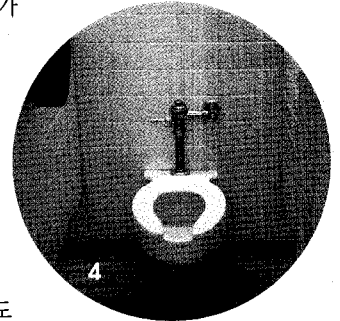
다시 밴쿠버에 돌아와 관광을 하다보면 캐나다 플레이스 라는 밴쿠버 최대의 극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영화상영관과 쇼핑몰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규모의 웅장함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캐나다 플레이스의 남자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캐나다인의 의식을 새삼 느끼는 부분이였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공중화장실 변기에 뚜껑이 없다는 것과 벽면이 타일과 벽지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타일은 청소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지만 벽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다만, 나름대로의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로키산맥으로 유명한 밴프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들려가게 되었는데 이곳 역시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었고 소변기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우선 발판부분이 달랐는데 아마 어른과 아이의 구분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닌가 유추하여 볼 뿐 달리 도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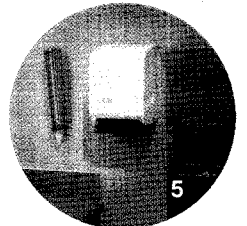


이제 여행의 막바지에 세계10대 절경중 하나인 루이스 호수와 모레인 호수, 아사바스카의 만년빙하, 경탄의 계곡 등 아름다운 캐나다의 자연을 만끽하였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자연에 맞게 오두막 식으로 지은 간이화장실이 있었다. 내부의 구조는 별로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자연에 크게 거스르지 않게 지은 건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더욱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렇게 여행일정을 마치고 온천지대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하기 위해 이동 중 또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렀는데 이곳에 못 보던 물건(종이타올 옆에 비치된 컵)이 있어 안내인에게 용도를 물어 보니 이 지역은 수질이 좋아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느 때부터 인지 생수를 사서 마시던 나는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화장실에도 문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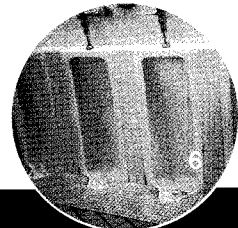
불과 2~3년 전부터 우리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변화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일반이용자들에 비교하여 몇 배 더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관광지외 국도변 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없는 관광지외 외국관광객이 찾아주길 기대하는 것은 차라리 욕심에 가깝다.

끝으로 이 여행을 마치며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 하나에도 그 나라의 문화가 숨겨져 있으니 잘 살펴보면 또 다른 관광의 맛을 알게 될 것이다.



■ 「세계의 화장실」을 소개하시던 홍하상 작가님이 해외출장으로 이번호에 쉽니다.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홍선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